

철학

이름이 가리키는 일에서, 직업이 된 이후의 열린 쟁점까지

기준일 2026년 9월 17일

철학은 가장 일반적인 물음을, 명령이나 측정만으로 담지 않고 논증으로 다루는 지적 실천이다.¹ 세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무엇을 안다고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좋은 추론이 무엇인지를 같은 자리에서 묻는다. 그 자리는 한 문명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중해, 남아시아, 동아시아는 기원전 첫 천년기에 서로 다른 언어로 물음을 열었고, 이후의 역사는 번역과 대학과 직업이 그 일을 한 제도 안으로 밀어 넣은 과정이다.

택한 해석은 학파 하나가 아니라 그 실천의 총칭이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17일이다. 철학자 사전이 아니다.

주

1 영어 위키백과 「Philosophy」, 리비전 1371937547. <https://en.wikipedia.org/wiki/Philosophy>, 위치: 리드·정의.

1장. 이름이 가리키는 일

사랑한다는 동사

영어 philosophy는 그리스어 philosophía에서 왔다. philós는 친구·사랑하는 사람이고, sophía는 지혜다. 라틴어 philosophia를 거쳐 옛 프랑스어로 들어왔고, 영어에서 확인되는 이른 기록은 1175년 무렵이다.¹ 누가 이 합성어를 처음 썼는지는 합의되어 있지 않다. 피타고라스가 스스로를 지혜의 소유자가 아니라 구하는 자로 불렀다는 전승이 있다. 확실한 것은 어원의 합성이지, 구조자의 이름은 아니다.

동아시아의 한자 哲學은 그 그리스어를 19세기에 다시 만든 말이다. 말은 수입된 번역어이고, 그 번역어가 가리키려 한 활동은 동아시아에 이미 오래 있었다. 5장이 번역의 칸을, 6장이 그 칸 안에서 다시 그어진 선을 본다.

일상어의 철학은 다른 물건이다. 경영 철학, 인생의 철학처럼 쓸 때 그것은 원칙이나 좌우명에 가깝다. 아래의 본문이 다루는 것은 그 비유가 아니라, 논증을 업으로 삼는 실천과 그 제도다.

정의가 이미 입장이다

버트런드 러셀은 철학의 정의가 수학과 달리 이미 철학적 태도라고 적었다.² 유일한 방법은 철학을 하는 것이다. 메타철학은 그 순환을 주제화한다. 모리스 레이저로위츠가 1940년 무렵 이 말을 썼고, 1970년 1월 전용 저널이 나왔다.³ 티모시 윌리엄슨은 “철학의 철학”이 철학 밖의 상급 학문이 아니라 철학의 일부라고 본다. 비트겐슈타인은 2계 철학을 거부했다. 철자라는 낱말의 철자법이 따로 있지 않듯이, 철학 위의 철학도 없다는 뜻이다.

윌프리드 셀라스는 철학의 목적을, 가장 넓은 의미의 사물이 어떻게 함께 걸려 있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라고 적었다.⁴ 1956년 강의 「경험론과 정신의 철학」은 같은 저자의 다른 텍스트다. 이 문장은 분과 목록보다 경계를 잘 보여 준다. 철학은 한 영역의 데이터를 모으는 일이 아니라, 영역들이 서로 모순 없이 놓일 수 있는지를 묻는 일이다.

정의의 후보는 크게 셋이다. 방법 중심은 순수 이성·개념 분석·언어 치료를 철학의 표지로 본다. 주제 중심은 존재·지식·가치·논리처럼 가장 일반적인 물음을 표지로 본다. 가족 유사 정의는 공통 본질 없이 겹치는 실천의 다발을 가리킨다. 셋 모두 이미 무엇을 바깥에 둘지를 판정한다. 과학과 연속이라고 보는 자연주의(과인)와, 경험으로 담하지 않는 물음이라고 보는 입장이 같은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다른 답을 준다.

과학과 신학이 떨어져 나간 자리

17세기까지 자연 연구 상당수는 자연철학이었다. 뉴턴의 1687년 책은 제목부터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다. 윌리엄 휴얼은 1833년에 scientist(과학자)라는 영어 낱말을 만들었고, 1834년 메리 서머빌 서평에 활자로 나왔다.⁵ 실험과 측정으로 닫히는 물음은 분과 과학의 이름이 붙었고, 철학에는 그 분과가 전제하는 개념—원인, 법칙, 관찰, 확률, 설명—이 남았다. 확인되는 것은 제도의 분기이다. 박사 학위 이름 Philosophiae Doctor가 그 분기를 거꾸로 증언한다. 물리학 박사도 이름으로는 철학 박사다. 7장이 그 학위가 연구 학위가 된 경로를 본다.

중세 라틴 기독교에서 철학은 신학의 하녀로 불리기도 했다. 대상이 신으로 고정되면 철학의 물음은 교리의 보조가 된다. 그 배치를 받아들인 스콜라와, 이성과 계시의 역할을 다시 나눈 이슬람 칼람·팔사파는 같은 그리스 유산을 다른 제도 안에 넣었다. 철학과 종교의 경계는 교리의 내용이 아니라, 물음을 닫는 권위가 텍스트인가 논증인가에 있다.

칸트의 《순수이성비판》(1781, 개정 1787)은 세 물음을 남긴다.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희망해도 되는가.⁶ 한국어 개설이 여기에 미학을 네 번째로 엮거나 희망을 미학에 대응시키는 배정은, 칸트가 희망을 종교의 물음으로 둔 자리와 맞지 않는다. 그 세 물음은 인식론·윤리학·종교철학이 갈라지는 이정표로 읽힌다.

주

- 1 영어 위키백과 「Philosophy」, 리비전 1371937547. 위치: 어원.
- 2 영어 위키백과 「Metaphilosophy」, oldid 1373748407. 위치: 정의의 어려움.
- 3 같은 항목. 레이저로워츠 1940/1942, 저널 1970-01.
- 4 영어 위키백과 「Wilfrid Sellars」, 2026-09-08. 목적 정식. 1956년 강의 「Empiricism and the Philosophy of Mind」는 같은 저자의 다른 텍스트.
- 5 영어 위키백과 「William Whewell」. scientist 1833 조어, 1834 활자.
- 6 영어 위키백과 「Immanuel Kant」, oldid 1374575845. 《순수이성비판》 세 물음.

2장. 물음을 다루는 도구

철학을 방법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는 반복해서 실패한다. 남는 것은 도구의 목록이다. 같은 물음이 도구가 바뀌면 다른 증거가 된다.

대화와 주석

소크라테스의 문답은 상대가 이미 쓰는 말을 그 말의 정의로 되돌려, 모순이 드러나게 하는 일이다. 플라톤이 그 대화를 글로 고정하면서 철학은 구술 공연에서 읽을 수 있는 텍스트가 되었다. 동아시아의 주석 전통은 다른 경로로 같은 밀도에 도달한다. 경전의 한 구절을 풀고, 앞선 주를 다시 주하고, 이(理)와 기(氣)처럼 한 쌍의 항을 수백 년 동안 밀고 당긴다. 주석이 권위에 복종만 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에서 이어받은 사단칠정 논쟁은 같은 사서 주희 체계 안에서 발출의 방향을 갈랐다.¹ 문답과 주석은 합의를 강제하지 않는다. 같은 경전에서 발출의 방향이 갈리면 주석은 논쟁이 된다.

인도 다르샤나의 수트라-바샤 구조도 주석이다. 짧은 정리에 긴 해설이 붙고, 해설에 대한 반박이 다음 학파의 출발이 된다. 도구의 공통점은 텍스트를 닫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위가 있는 문장일수록 더 많은 논증이 그 문장 주위를 돈다.

형식과 사고실험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르가논》은 타당한 추론의 꼴을 삼단논법으로 묶었다. 고틀로프 프레게의 1879년 《개념표기법》은 양화와 변항을 기호로 올려, 이후 형식 논리의 출발점이 된다.² 오늘날 논리학은 철학과 수학의 양쪽에 속한다. 철학 쪽의 논리학은 타당성만이 아니라, 일상 논증의 오류·함의·화맥을 함께 본다.

사고실험은 실험실 없이 조건을 고정하는 장치다. 아비센나의 공중 인간, 데카르트의 악령, 퍼트넘의 쌍둥이 지구, 잭슨의 메리, 설의 중국어 방, 톰슨의 바이올리니스트가 한 줄에 놓인다. 존 노턴은 사고실험을 옷을 갈아입은 논증으로 보고, 제임스 로버트 브라운은 선형적 통찰의 창으로 본다. 캐슬린 윌크스는 개인 정체성 사례가 과소기술되어 오도한다고 했고, 대니얼 데닛은 직관 펌프가 남용된다고 불렀다.³ 한계는 분명하다. 루크레티우스의 창은 공간이 무한이어야 한다고 밀었으나, 유한하면서 경계 없는 공간이 가능하다. 사고실험은 개념의 긴장을 드러내지, 세계를 측정하지 않는다.

경험으로 직관을 시험하기

실험철학(x-phi)은 2000년 무렵부터 설문·코퍼스·암묵 측정으로 철학자가 전제하는 “우리의 직관”을 표본으로 만든다. 조슈아 노브의 2003년 부수효과 설문에서, 같은 예견된 결과가 해악이면 의도적으로, 이득이면 의도적이지 않게 읽히는 응답이 나왔다. 니콜스와 노브(2007)의 설문에서 결정론 짧은 장면을 추상으로 물으면 비양립론, 구체적 피해자로 물으면 양립론 쪽으로 기운 응답이 나왔다.⁴ 마세리 등(2004)의 지시 직관 문화 차이는 후속 재현이 갈렸다. 한 재현 프로젝트는 유명한 결과의 대략 70퍼센트를 재현했다고 한다.⁵ 설문은 직관을 표본으로 만들 뿐, 표본의 언어·번역·문화가 곧 한계다. 직관을 증거로 둘 수 있는가는 8장이 맡는다.

스탠퍼드 철학백과 실험철학 항목(2026년 4월 8일)은 필페이퍼스 분류 문헌이 2007년 100편 미만에서 2025년 1월 3,400편 이상으로 늘었다고 적는다.⁶ 성장은 분과의 승리가 아니라, 직관이 더 이상 무료 전제가 아니라는 압력의 크기다.

주

1 영어 위키백과 「Korean philosophy」, 2026-07-30. 퇴계 1501-70, 율곡 1536-84.

2 영어 위키백과 「Begriffsschrift」, 2026-08-08. 1879.

- 3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Thought Experiments」, 개정 2023-11-28.
- 4 SEP 「Experimental Philosophy」(Sytsma, Reuter, Willemsen), 2026-04-08. Knobe 2003; Nichols & Knobe 2007.
- 5 영어 위키백과 「Experimental philosophy」.
- 6 SEP 「Experimental Philosophy」, 2026-04-08. PhilPapers 분류 2007→2025-01.

3장. 물음이 갈라지는 자리

분과는 행정 단위가 아니라, 한 물음이 다른 물음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경계는 새고, 새는 곳이 응용 철학이다.

네 개의 고전 핵

형이상학은 존재하는 것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을 묻는다. 무엇이 기본 존재자인가, 속성과 개체는 어떻게 다른가, 가능과 필연은 세계에 있는가 말에 있는가, 정신과 물질은 한 종류인가. 존재론은 그 안의 목록 작업이고, 우주론은 세계 전체의 기원·구조를 묻던 옛 이름이다. 스탠퍼드 항목이 인정하듯 정의 자체가 쟁점이다.¹ 형이상학을 무의미하다고 본 논리실증주의와, 다시 가능세계·인과·구성으로 돌아온 20세기 후반은 같은 이름을 다른 방법에 붙였다.

인식론은 지식·정당화·합리성을 묻는다. 전통 분석은 지식을 참인 정당화된 믿음(JTB)으로 풀었다.² 플라톤 《테아이테토스》는 이 분석을 제시하고 바로 비판한다. 에드먼드 게티어의 1963년 논문 「정당한 참 믿음은 지식인가」(Analysis 23권 6호, 121–123쪽)는 운이 끼어든 짧은 사례 두 개로 JTB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였다.³ 거짓 전제 금지, 민감성, 안전성, 신뢰할 과정, 덕 인식론, 지식을 원시 개념으로 두는 지식 우선 이론이 뒤를 이었다. 린다 자그웁스키는 참을 함의하지 않는 정당화에 행운을 더하면 게티어가 되살아난다고 일반화했다. 인식론의 진전은 합의된 정의가 아니라, 실패 조건이 더 정밀해진 것이다.

윤리학은 행위·성품·제도의 옳음을 묻는다. 메타윤리학은 도덕 문장의 의미와 진리치, 규범 윤리학은 옳음의 기준, 응용 윤리학은 의료·동물·환경·전쟁·인공지능처럼 닫히지 않은 현장에 그 기준을 대 본다. 결과주의(벤담 1789, 밀 1861; 용어 자체는 앤스콤)는 결과를, 의무론(칸트 1785)은 의무의 형식을, 덕 윤리(아리스토텔레스, 20세기 앤스콤·푸트)는 성품을 앞에 둔다.⁴ 규범을 기술로 환원하면 당위가 빠진다. 세 학파가 서로를 특수 사례로 흡수하지 못하는 지점이, 분과가 하나로 접히지 않는 이유다. 그 실패가 응용 문제의 실제 모습이다.

논리학은 좋은 추론과 나쁜 추론을 가르친다. 연역은 참을 보존하고, 귀납은 일반화하며, 가추는 최선의 설명을 고른다. 형식 논리는 기호로 타당성을 계산하고, 비형식 논리는 맥락과 오류를 본다. 철학 교육에서 논리학이 도구과목인 이유와, 수학과에서 수리논리를 전공하는 이유는 같다. 추론의 끝은 주제보다 먼저 움직인다.

핵 옆에는 미학, 정치철학, 정신철학, 언어철학, 과학철학이 붙어 있다. 분석 전통의 별명 LEMMings—언어, 인식론, 형이상학, 정신—는 20세기 무게 중심이 존재에서 의미와 마음으로 옮겼음을 보여 준다. 생명윤리는 윤리학이고 의료이며 법이다. 인종 철학은 형이상학(인종이 존재하는가)과 정치철학을 동시에 요구한다. 분과 이름은 도서관 분류이지, 물음이 멈추는 벽이 아니다.

주

1 SEP 「Metaphysics」, 개정 2023-05-04.

2 SEP 「Epistemology」, 개정 2024-10-26.

3 영어 위키백과 「Gettier problem」, 2026-09-08. Analysis 23(6), 1963. 《테아이테토스》는 JTB를 제시하고 비판.

4 영어 위키백과 「Ethics」; SEP 「The Definition of Morality」(Gert/Gert), 2025-01-28. 결과주의 용어는 앤스콤.

4장. 여러 곳에서 동시에 시작된 일

기원전 첫 천년기 중후반, 지중해 동부·북인도·중국은 신화와 다른 설명 방식을 제도화하기 시작했다. 카를 야스퍼스의 축의 시대라는 이름은 이 동시성을 가리키는 20세기 표지다. 표지가 인과를 증명하지는 않는다. 세 지역이 서로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과, 공통 원인을 한 줄로 적을 근거가 아직 없다는 것이 같이 있다. 증명되는 것은 세 전통이 같은 종류의 물음을 열었다는 사실이다.

그리스에서 헬레니즘으로

서양 통사가 철학의 시작으로 적는 자리는 기원전 6세기 밀레토스다.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을 물로 보았다는 보고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온다. 파르메니데스는 생성 소멸을 부정했고, 제논의 역설은 운동의 개념을 공격했으며,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를 남겼다. 소크라테스(기원전 469–399경)는 글을 남기지 않고 윤리를 광장으로 옮겼다. 플라톤(기원전 427–347경)은 이데아와 대화편,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 384–322)는 범주·사원인·삼단논법·에우다이모니아를 체계로 묶었다. 아카데미아는 기원전 387년경 아테네 근교 아카데모스의 올리브 숲에 섰다.¹

알렉산드로스 이후 헬레니즘은 스토아, 에피쿠로스, 회의주의를 도시의 윤리로 만들었다. 플로티노스의 신플라톤주의(3세기)는 일자에서 유출되는 존재를 종교와 붙였다. 이 줄이 중세 라틴과 이슬람 양쪽에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 유스티니아누스가 529년 아테네 학원을 닫았다는 기록은 이교 제도의 한 종점이지, 철학 활동의 종점은 아니다.

남아시아의 다르샤나

인도 철학의 단위는 학파(다르샤나)다. 베다를 지식의 원천으로 인정하는가에 따라 아스티카와 나스티카가 갈린다.² 아스티카 여섯은 니야야(논리·인식), 바이세시카(범주), 상키아(이원), 요가, 미망사(제의·언어), 베단타(브라만)다. 나스티카에는 불교, 자이나, 아지비카, 차르바카가 들어간다. 우파니샤드는 후기 베다와 그 이후 층에 걸쳐 있고, 아트만과 브라만, 업과 윤회를 철학의 어휘로 고정했다. 고타마와 마하비라가 이끈 슈라마나 운동은 대략 기원전 6–5세기, 베다 권위 밖에서 자아·고통·비폭력을 다시 짚다. 상카라(8세기경)의 불이일원론은 현상 다수를 마야로 읽고, 라마누자의 제한적 불이(11–12세기)는 신과 영혼의 구별을 남긴다. 근대 비베카난다(1863–1902) 이후 이 전통은 영어 세계와 번역으로 만난다. 핵심은 해탈이 인식론과 형이상학과 수행을 한 줄에 묶는다는 점이다. 지식을 행위와 분리하지 않는 배열은 3장의 서양 분과 지도와 겹치지 않는다. 이 배열은 5장의 한역 통로를 거쳐 동아시아의 공과 심으로 다시 쓰인다.

중국의 제자백가

춘추 말에서 전국 시대(대략 기원전 500–221)의 제자백가는 통치와 수양을 철학의 1차 대상으로 두었다.³ 공자(기원전 551–479)의 예와 인, 묵자의 겸애와 이(利), 도가의 도·무위(노자의 역사적 실존은 전설 층), 명가의 이름과 실, 한비의 법은 같은 혼란에 대한 다른 처방이다. 한대 동중서는 유학을 제국의 정통으로 올렸고, 위진 현학은 도가 형이상학을, 송명리학은 이와 기를 우주와 마음의 뼈대로 재건했다. 주희(1130–1200)와 왕양명(1472–1529)의 갈림—격물과 양지—은 인식과 행위가 한 문제임을 다시 확인한다. 불교는 1세기 이후 들어와 선으로 변하고, 중국 철학의 어휘를 공(空)과 심으로 확장했다.

스탠퍼드 중국 인식론 항목이 강조하는 것은 정당화된 참 믿음의 분석이 아니라, 마음(心)과 사물(物), 이름(名)과 실(實), 지(知)와 행(行)의 쌍이다.⁴ 서양 분과 지도를 그대로 씌우면 이 쌍이 윤리학으로만 보이거나 형이상학으로만 보인다. 둘 다 축소다.

- 1 영어 위키백과 「Platonic Academy」, 2026-07-29. 창설 ca. 387 BCE, 유스티니아누스 529 폐쇄.
- 2 영어 위키백과 「Indian philosophy」, rev. 1373969252.
- 3 영어 위키백과 「Hundred Schools of Thought」, 2026-03-02.
- 4 SEP 「Chinese Epistemology」, 개정 2025-03-26.

5장. 번역이 만든 통로

철학의 역사에서 전환점은 종종 천재가 아니라 번역이다. 그리스어가 시리아어와 아랍어로, 아랍어가 라틴어로, 산스크리트가 한문으로, 네덜란드어와 독일어가 한자로 옮길 때마다 물음의 목록이 바뀌었다.

아랍어가 그리스를 살린 자리

8-10세기 바그다드의 번역 운동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신플라톤 문헌을 아랍어로 옮겼다. 지혜의 집(바이트 알히크마)은 그 운동의 상징이다. 디미트리 구타스가 경고하듯, 학부제 종합대학 이미지는 후대 전설에 가깝고, 문서화되는 것은 도서관·후원·번역자(후나인 이븐 이스하크 등)다.¹ 알마문(재위 813-833)의 관측과 후원은 그 네트워크의 한 축이다.

알킨디(801-873)는 이성과 계시의 조화를 이슬람 철학의 첫 프로그램으로 걸었다. 이븐 시나(아비센나, 980-1037)는 본질과 존재를 가르고, 공중 인간으로 영혼의 자립을 논했다. 알가잘리의 1095년 《철학자의 부조리》는 이븐 시나 식 필연 인과를 공격했다. 이븐 루시드(아베로에스, 1126-1198)는 《부조리의 부조리》로 반박했다.² 서 지중해에서 페리파토스 전통이 기우는 동안, 동쪽으로 이븐 시나 주의와 조명 철학, 물라 사드라의 초월 신지가 이어졌다. 라틴 유럽이 12-13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를 회수한 경로는 이 아랍어 통로를 빼면 설명이 끊긴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는 그 회수의 신학 버전이다. 보에티우스는 아리스토텔레스 논리를 라틴어에 남겼고, 그 라틴 줄이 회수의 한 가닥이 된다.

산스크리트가 한문을 만든 자리

4장이 적은 대로, 불교는 1세기 이후 중국에 들어와 선으로 변하고 공(空)과 심(心)을 철학의 어휘에 보탤다. 그 유입은 산스크리트·프라크리트 경전의 한역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번역이 물음의 목록을 바꾼 통로 가운데, 이 통로는 서아시아-유럽 회수와 다른 방향이다. 한역이 만든 어휘는 6장의 성리학과 교토학파가 다시 쓴다.

한자가 서양 학을 받은 자리

니시 아마네(西周, 1829-1897)는 네덜란드어 filosofie를 옮기며 希哲學을 시험했고, 希를 뎌 哲學이 활자로 확인되는 이른 해는 1874년 《백일신문》이다.³ 希가 떨어진 것은 소망의 수사가 학문 이름에 남지 않게 하려는 선택으로 읽힌다. 중국에서 이 한자어가 정착하는 경로는 일본을 경유한 번역 네트워크다. 1874년 활자와 다른 연도—중국 1905, 일본 1910—가 제도 정착의 표지로 돌기도 한다. 한국어에서 이 말을 책 제목으로 쓴 이른 예로 이인재(1870-1929)의 1912년 《철학고변》이 거론된다.⁴

번역은 중립이 아니다. philosophy를 理學이 아니라 哲學으로 옮긴 순간, 성리학의 理와 서양 철학은 같은 글자를 두고 경쟁하거나 포개진다. 동아시아 대학의 철학과가 서양 철학과 동양 사상을 한 학과에 넣은 편제는 이 번역의 잔여다.

주

1 영어 위키백과 「House of Wisdom」. Gutas의 전설 비판.

2 영어 위키백과 「The Incoherence of the Philosophers」, 2026-08-14. 가잘리 1095, 이븐 루시드 반박.

3 영어 위키백과 「Nishi Amane」. 希哲學 시험 1861-71, 活字 1874.

4 한국어 위키백과 「철학」, oldid=42089007, 2026-07-09. 위치: 어원. 《철학고변》 서지.

6장. 경계가 다시 그어지는 곳

20세기는 철학의 정의를 지리적 형용사로 시험했다. 한국에서 성리학은 철학과 칸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일본 교토학파는 불교인가 철학인가. 아프리카에 철학이 있는가. 물음 자체가 유럽 대학이 자기 실천을 표준으로 둔 뒤에 생긴다.

한국에서 이기가 된 유학

한반도의 지적 전통은 무속·도·불·유가의 겹이다. 원호(617–686)의 화쟁은 불교 교의를 서로 모순되지 않게 읽는 방법론이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올렸다. 이황 퇴계(1501–1570)는 이와 기의 호발, 이이 율곡(1536–1584)은 기발리승을 주장했다. 사단과 칠정의 발출을 어느 쪽이 이끄느냐는 심리학이 아니라, 도덕 감정이 우주 구조와 같은 총인가를 묻는 형이상학이다. 정약용(1762–1836)의 실학은 그 형이상학을 경세와 고증으로 돌렸다.¹

개항 이후 서양 철학은 일본 유학과 선교 학교를 통해 들어왔다. 해방 후 남쪽 대학은 독일 관념론과 유학을 한동안 같이 읽었고, 1980년대 후반 이후 분석·마르크스·후기구조·자유주의가 학과를 갈랐다. 북쪽의 주체는 철학의 이름을 혁명 이론에 붙인 다른 제도다.

교토와 절대무

니시다 기타로(1870–1945)의 1911년 《선의 연구》는 순수 경험에서 출발한다.² 존재가 놓이는 장소로서의 절대무는 이후 교토학파가 서양 존재론의 대항 개념으로 세운 말이다. 교토학파는 선과 독일 관념론의 어휘를 섞되, 수입이 아니라 장소의 논리를 만들려 했다. 정치적 유착(전시 협력)은 이 학파의 철학적 유산과 같이 남아 있는 빛이다. 절대무가 형이상학의 성공인지는 열린 평가다. 확실한 것은 일본 제국 대학이 철학과라는 칸 안에서 불교를 다시 썼다는 제도적 사실이다.

아프리카에서 누가 철학자인가

플라시드 템펠스의 1945년 《반투 철학》은 반투어의 범주에 형이상학이 들어 있다고 읽었다. 풀랭 운동지는 이를 민족철학이라 부르고, 익명의 집단 합의를 철학으로 포장한다고 비판했다. 케냐의 헨리 오데카 오루카(1944–1995)는 네 갈래—민족철학, 민족주의 이념, 직업 철학, 현자 철학—를 나누고, 마을의 현자 가운데 공동 격언을 이성으로 시험하는 사람을 기록했다.³ 과시 위례두는 개념적 탈식민을 제안했다. 외래 범주를 벗기되, 속담을 분석의 대상에서 빼지 말 것.

「우분투」—「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도덕 심리학의 표지로 자주 인용된다. 인용만으로 분과가 되지는 않는다. 오루카가 남긴 쟁점은 문해 이전 사회에 철학이 있는가이다. 그가 소크라테스와 비교한 이유는, 그리스 철학의 출발도 책이 아니라 대화였기 때문이다. 문자는 보존 장치이지 철학의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주장은, 4장의 축의 시대를 그리스 문자 문화로만 읽는 습관을 흔든다.

주

1 영어 위키백과 「Korean philosophy」, 2026-07-30. 퇴계 1501–70, 율곡 1536–84.

2 SEP 「The Kyoto School」, 개정 2026-09-14. 니시다 1870–1945, 1911.

3 SEP 「Sage Philosophy」(Dismas Masolo), 개정 2016-02-22. 오루카 1990; 운동지 민족철학 비판; 템펠스 1945.

7장. 직업이 된 이후

철학이 대학의 월급과 학위와 저널이 되면서, 누가 철학자인지는 임용과 인용으로 측정되기 시작했다. 세계 철학자 인구의 전수는 이 책의 범위 밖이다.

학과와 학위

베를린 대학(1810)은 철학부를 연구 박사의 자리로 바꿨다. 그 이전 파리의 박사(~1150)는 후대 연구박사와 같은 논문을 전제로 두지 않은 제도로 적힌다. 예일 대학은 1861년 미국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주었다.¹ 이름 안의 philosophy는 한 분과가 아니라 구 자유학예의 잔여다. 그래서 화학 박사도 Ph.D.다. 철학과가 따로 선 것은 19세기 연구대학이 신학·법·의학 옆의 철학부를 실험실 분과로 쪼갰 결과다.

한국철학회는 1953년 설립되어 학술지 『철학』을 낸다.²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 대학 철학과와 교양 과목이 한국에서 철학이 교실에 들어가는 경로다. 행정고시 PSAT 언어논리, 법학직성시험 추리논증은 논리학을 선발 도구로 쓴다. 이 수험 목록은 한국 중등·선발 시험에서 논리학과 윤리가 쓰인다는 자리만 가리킨다.³

필페이퍼스는 철학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학술 철학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을 같이 돌린다.⁴ 그 표본이 세계 철학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유네스코는 2002년 세계 철학의 날을 열었고, 매년 11월 셋째 목요일이다.⁵ 공식문은 철학을 관용과 평화, 비판적 사고의 연습으로 내세운다. 기념일은 분과의 지위를 국가 간 기구가 보증하는 장치다. 보증이 임용 시장을 만들지는 않는다.

누가 비용을 내는가

중세 수도원과 궁정, 이슬람의 후원, 동아시아의 과거와 서원, 근대 대학의 세금과 등록금은 같은 활동의 다른 청구서다. 철학은 시장 가격이 없는 재화처럼 보이지만, 노동 시간은 항상 누군가의 잉여에서 나온다. 응용 윤리학이 병원·기업·군에 들어가는 21세기의 배치는, 순수 형이상학이 더 이상 유일한 청구 항목이 아님을 보여 준다. 반대로 순수 분과를 교양 과목으로만 남기면, 3장의 책은 직업 없이 커리큘럼의 장식이 된다.

연구 박사 모델은 교원 재생산을 전제하고, 학부 교양 수요는 그 재생산을 전부 받아 주지 않는다. 철학의 사회적 현존은 학과 정원보다 윤리 심사, 정책 자문, 공적 글쓰기, 중등 교과 쪽에 더 넓게 퍼져 있다.

주

1 영어 위키백과 「Doctor of Philosophy」. 파리 ~1150, 베를린 1810, 예일 1861.

2 한국어 위키백과 「한국철학회」, 2025-04-27. 창립 1953.

3 나무위키 「철학」, 2026-09-06. 위치: 입문·수험.

4 영어 위키백과 「PhilPapers」, 2026-04-05. 설문 존재.

5 영어 위키백과 「World Philosophy Day」, 2025-01-15. UNESCO 2002. 공식 페이지 <https://www.unesco.org/en/days/philosophy>

8장.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

합의된 최종 답이 적다는 사실은, 답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일관성, 명료성, 타당성, 반례에 대한 응답이 철학이 답을 판정하는 방식이다. 아래는 2026년에도 판정이 열려 있는 쟁점이다.

분석과 대륙

분석 철학은 20세기 초 영어권에서 관념론에 대한 반란으로 읽힌다. 프레게의 논리, 러셀의 기술 이론, 비트겐슈타인의 1921/22년 《논리철학 논고》와 1953년 《철학적 탐구》, 비엔나 학파의 검증, 콰인의 자연주의가 한 줄이다.¹ 대륙 철학이라는 영어 라벨은 1970년대 영미 강의 목록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고, 후설의 현상학, 하이데거의 존재론, 사르트르의 실존, 데리다의 해체를 한 바구니에 넣었다.² 바구니는 방법의 이름이 아니라 상대의 이름이다. 논리적 명료를 표지로 내세우는 쪽과, 경험의 조건·역사·실천을 표지로 내세우는 쪽은 같은 칸트를 서로 다른 조상으로 쓴다. 저널과 인용은 여전히 이 선을 재생산하지만, 선 자체가 연구 프로그램의 필연은 아니다.

직관은 증거인가

게티어 이후 인식론과 실험철학은 같은 곳을 다른 도구로 판다. 사례 직관이 문화·프레이밍·성격에 흔들린다면, 팔걸이 의자에서 꺼낸 “우리”는 누구인가. 제한주의는 직관을 심리 자료로 내리고, 윌리엄슨은 직관이라는 말 자체가 평범한 사고를 신비화한다고 본다. 재현 논쟁은 이 쟁점을 과학의 위기와 같은 문법으로 옮겼다. 철학이 과학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철학의 물음이 과학으로 닫히지 않는다는 주장은 1장의 정의 후보가 방법 논쟁으로 돌아온 형태다.

진보가 있는가

데이비드 찰머스(2015)는 철학에 진보가 있는지, 과학과 비교해 얼마나 적은지, 왜 적은지를 물었다.³ 비트겐슈타인은 가려움을 긁는 일에 비유했고, 퍼트남은 철학이 옳은 생각보다 틀린 생각을 보여 주는 데 더 낫다고 했다. 게티어 이후의 인식론, 노브 이후의 행위 이론, 형이상학의 가능세계 도구는 진보의 후보다. 후보가 진보인지는, 후속 세대가 그 도구 없이 같은 물음을 더 못 다루는가로 판정된다. 판정 기준 자체가 메타철학이다.

누가 안에 있는가



라파엘이 1509-1511년 바티칸 서명홀에 그린 《아테네 학당》. 한가운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손짓으로 갈라진다. 르네상스가 철학을 그리스 한 장면으로 묶은 구성물이다. 캐논이 그림으로 고정되는 방식이지, 실제 학당의 기록이 아니다. 원품은 프레스코. 이 파일은 원품의 2차원 사진 재현이다.

바티칸 서명홀 원품 프레스코의 2차원 사진. 퍼블릭 도메인(라파엘 1520년 사망).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The_School_of_Athens%22_by_Raffaello_Sanzio_da_Urbino.jpg

중국 철학·인도 다르샤나·아프리카 현자 철학을 커리큘럼 선택 과목으로 두는 편제는, 철학의 정의를 그리스-유럽 줄로 고정한 뒤에만 자연스럽다. 반대 극단은 모든 세계관을 철학으로 부르는 것이다. 운동지의 비판이 겨냥한 것은 그 극단이다. 이름 있는 논증, 반박 가능성, 개념의 정밀화가 있으면 철학이고, 집단의 무명 합의만 있으면 민족지다—이 기준 역시 한 전통의 산물이다. 오류카가 현자의 이견을 녹음한 이유는, 합의 가정 자체가 경험적으로 거짓임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누가 직업 철학의 입구를 통과하는가는 재능의 분포만으로 닫히지 않는다. 입구가 바뀌면 8장의 쟁점 목록도 바뀐다. 목록이 바뀌지 않는다면, 철학은 자기 경계 물음을 직업 재생산에 양보한 것이다.

무효화 신호는 이렇다. 분석/대륙 선이 저널 분류에서 사라지면 첫째 항은 역사 항목이 된다. 직관 재현이 안정되고 제한주의가 교과서 정설이 되면 둘째 항은 닫힌다. 진보의 판정 기준이 분과 공통의 척도로 고정되면 셋째 항은 측정 문제로 내려간다. 비유럽 전통이 핵 커리큘럼의 기본값이 되면 넷째 항의 질문 형태가 바뀐다. 2026년에는 넷 다 열려 있다.

주

- 1 영어 위키백과 「Ludwig Wittgenstein」. Tractatus 1921/1922,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1953.
- 2 영어 위키백과 「Continental philosophy」, rev. 1371689005. 라벨 1970년대 영어권 강의.
- 3 영어 위키백과 「Metaphilosophy」. Chalmers 2015 진보 물음.

참고문헌

각주는 아래 항목을 가리킨다.

본문이 가리킨 1차 (확인은 2차)

- Edmund Gettier, "Is Justified True Belief Knowledge?", **Analysis** 23(6), 1963, 121–123. 확인: 영어 위키백과 "Gettier problem", 2026-09-08.
- Gottlob Frege, **Begriffsschrift**, 1879. 확인: 영어 위키백과 "Begriffsschrift", 2026-08-08.
- Isaac Newton, **Philosophiæ Naturalis Principia Mathematica**, 1687. 확인: 영어 위키백과 "Philosophy", rev. 1371937547 (제목).
- Immanuel Kant, 《순수이성비판》, 1781, 개정 1787. 확인: 영어 위키백과 "Immanuel Kant", oldid 1374575845.
- William Whewell, scientist 조어 1833, 활자 1834 (메리 서머빌 서평). 확인: 영어 위키백과 "William Whewell".
- 西周, 《백일신문》, 1874. 확인: 영어 위키백과 "Nishi Amane".
- 西田幾多郎, 《선의 연구》, 1911. 확인: SEP "The Kyoto School", 2026-09-14.
- al-Ghazālī, 《철학자의 부조리》, 1095. 확인: 영어 위키백과 "The Incoherence of the Philosophers", 2026-08-14.
- Placide Tempels, **La Philosophie bantoue**, 1945. 확인: SEP "Sage Philosophy", 2016-02-22.
- Wilfrid Sellars, 목적 정식. 확인: 영어 위키백과 "Wilfrid Sellars", 2026-09-08. 1956년 강의 「Empiricism and the Philosophy of Mind」와 인용문을 한 출전으로 묶지 않음.
- Joshua Knobe, 부수효과 설문, 2003; Shaun Nichols & Joshua Knobe, 2007. 확인: SEP "Experimental Philosophy", 2026-04-08.
- David Chalmers, 철학의 진보 물음, 2015. 확인: 영어 위키백과 "Metaphilosophy".

개설·시드

- 나무위키, 「철학」, 최종 수정 2026-09-06 00:48:25.
- 한국어 위키백과, 「철학」, oldid=42089007, 2026-07-09.
- 영어 위키백과, "Philosophy", rev. 1371937547.
- 영어 위키백과, "Metaphilosophy", oldid 1373748407.

분과와 방법

- 영어 위키백과, "Ethics"; "Gettier problem" (2026-09-08); "Experimental philosophy"; "Continental philosophy", rev. 1371689005.
- 영어 위키백과, "Begriffsschrift" (2026-08-08); "Ludwig Wittgenstein"; "Wilfrid Sellars" (2026-09-08); "Immanuel Kant", oldid 1374575845.
-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Epistemology", 개정 2024-10-26.
-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The Analysis of Knowledge", 개정 2026-01-21.
-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Experimental Philosophy" (Justin Sytsma, Kevin Reuter, Pascale Willemsen), 2026-04-08.
-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Metaphysics", 개정 2023-05-04.
-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Thought Experiments", 개정 2023-11-28.

-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The Definition of Morality" (Joshua Gert, Bernard Gert), 개정 2025-01-28.

지역 전통

- 영어 위키백과, "Indian philosophy", rev. 1373969252; "Upanishads"; "Islamic philosophy"; "The Incoherence of the Philosophers" (2026-08-14); "House of Wisdom"; "Chinese philosophy"; "Hundred Schools of Thought" (2026-03-02); "Korean philosophy" (2026-07-30); "African philosophy", oldid 1370912735; "Nishi Amane"; "History of philosophy", rev. 1371645366; "Analytic philosophy".
-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Chinese Epistemology", 개정 2025-03-26.
-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The Kyoto School", 개정 2026-09-14.
-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age Philosophy" (Dismas Masolo), 개정 2016-02-22.

제도와 기념

- 영어 위키백과, "William Whewell"; "Doctor of Philosophy"; "Platonic Academy" (2026-07-29); "World Philosophy Day" (2025-01-15); "PhilPapers" (2026-04-05); "The School of Athens" (2026-09-04).
- 한국어 위키백과, 「한국철학회」, 2025-04-27.
- UNESCO, "World Philosophy Day", <https://www.unesco.org/en/days/philosophy>

그림

- Raphael, *The School of Athens*, 1509–1511, Stanza della Segnatura, Vatican. Photograph of the fresco,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author died 1520; faithful 2D reproduction).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22The_School_of_Athens%22_by_Raffaello_Sanzio_da_Urbino.jpg